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어떤 표현은 본래 의미하는 바는 사라지고 빈 기표가 되는 일이 허다하다. 말의 본래의 무게를 잃은 시대일 수록 더 그렇다. 그중에서 허허하는 현대인에게만 '야차'하는 것이다. 사실 이 말에는 건성으로 들을 수 없는 함축성이 있다. 염치는 사람이 자기 잘못과 실수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염치가 없다는 표현은 사람의 자격과 조건에 관한 매우 질타이다. 요즘의 세태를 한마디로 하자면 가히 '불염치의 세상'이다. 물론 염치의 상실은 생존 경쟁이라는 비극 없는 수렁에서 허허하는 현대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염치의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와 늘 께를 함께해 왔다. 이런 염치의 중요성을 조선 후기의 선비 삼연 김창흡(1653~1722)은 정신이 변격 나게 하는 시구절로 말한다.

삼연은 "오늘날 보건대 염치는 삼사리 배 속에나 있네. 늘 제 밥그릇이나 굶을 뿐 부역을 향해서는 앉지도 않네"라는 시를 썼다. 사람의 조건인 염치가 오히려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고, 강아지 배 속에서나 찾을 수 있

염치의 회복, 외면할 수 없는 요청에 대하여

다는 것이다. 이 짝은 시구절을 읽는 일은 순식간이지 만 민망함과 부끄러움의 시간은 한참이나 길다. 삼사리의 배 속에도 있는 염치를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세상이라니. 강아지는 자신의 밥그릇에 대한 불만도, 분수에 넘치는 탐욕도 없다. 그래서 밥이 있는 부역을 향해서 짚어대기는커녕 그쪽을 향해서 앉지도 않는다. 염치의 힘은 늘 밥그릇에 대한 탐욕에서 더 적나라하고 독하게 노골적으로 무너진다. 하지만 시 속의 강아지는 자신에게 합당한 몫에 만족함으로써 염치를 안다. 삼연이 하고 싶은 말은 부당한 몫을 끝없이 더 얻고 싶어 부역을 향해서 짚어대는 일은 강아지만도 못함을 일라고 하는 뜻이다.

고대의 철학자들도 염치를 탁월한 덕으로 여기며 자주 철학적 대화의 주제로 다뤘다. 대표적인 책이 플라톤이 쓴 '프로타고라스'다. 이 책은 소크라테스 제자인 플라톤이 스승과 프로타고라스의 대화를 책으로 기록한 것이다. 프로타고라스(BC 485?~BC 414?)는 당시의 가장 유명한 소피스트로 소크라테스와 염치라는 덕에 대하여 매우 흥미로운 논쟁적 대화를 펼친다. 프로타고라스에 의하면 염치는 신으로부터 인간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선물이자 능력이다. 사람은 염치를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견해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 그리고 그러한 견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의미다. 염치가 없는 상태는 곧 오만함이고, 이 오만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불행한 일이며, 그 결과로 오는 파국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배우며 가르쳤다.

염치는 왜 중요한 문제인가? 삶의 공간이 자연 상태에서 공동체 안으로 옮겨오면서 상호적 작용과 결속, 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몇몇 소수 영웅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고, 개인 모두의 삶을 위한 기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염치는 고대의 철학적 대화에서 끝나지 않는 의미를 가지며, 오히려 오늘날의 개인 모두에게 필요한 조건이다. 더 많은 사회적 염치야말로 바로 지금의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프로타고라스가 강변하는 염치의 가치를 좀 더 살펴보자.

사람들은 세분화된 다양한 전문적 기술을 각자 익히는 대로 배워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삶에 필요한 시민적 기술(염치)은 개인의 것이 아닌 이유에서 신 중의 신인 제우스가 직접 내린다. 제우스는 '모두에게 분배해서 모두가 나누어 갖게 하시오. 다른 기술들처럼 소수만이 가지면 안 되오'라고 말한다. 모두가 갖지 못하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염치와 정의를 누구나 알지 못한다면 병처럼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경고한다. 여기서 공동체의 조건은 국가적 문제나 충돌하는 이해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좁은 골목길을 막고 버티며 대처하는 운전 자세에서부터 차 한잔을 나누는 일상의 자리에서까지 염치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염치를 아는 것이 사람들의 출발이자 길이기 때문이다. 이제 염치가 숨 쉬는 현장을 강아지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회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이럴 줄은 나도 정말 몰랐다. 어쩌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공연히 분개해서 눈까지 흘기곤 하지 않았던가. 대체 저게 뭐라고 품에 안고 애지중지 떠받들단 말인가.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없었다. 우리 형님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닭은 데라곤 하나도 없는 네발짐승한테는 지극 정성을 다하면서 가족이 된 나에게서는 별 관심도 없었다. 덕분에 나는 질투심인지 섭섭함인지 혹은 소외감인지 모를 알곡은 감정을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

품에 안겨 온갖 사랑을 받던 그 개의 이름은 '사랑이'였다. 머리에는 항상 리본이 꽂혀 있고 연갈색 털은 자르르 윤기가 흘렀다. 팔 하나라도 안을 만큼 작고 귀엽고 깜찍한, 이뽀처럼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 그 개가 새끼를 낳았다. 고된 끝에 입양을 결정했다. 아이들도 본격적으로 조르기 시작했고 그사이 내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도대체 개란 무엇인가. 무엇이 그토록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알고도 싶었다. 좋아, 한번 키워 보지 뭐.

그렇게 개와 함께 살게 되었다. 아이를 새로 키우듯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귀찮기는커녕

개에 대하여

점점 더 빨려 들어갔다. 무슨 말인가를 알아먹으려는 듯 눈은 말뚱말뚱 고개는 가웃가웃, 세상천지에 그렇게 이쁜 것이 없었다. 어떤 때는 세 살배기 아기 같고 어떤 때는 심오한 철학자 같기도 보였다. 깊은 사색에 빠진 듯 무언가를 오래도록 응시하는 모습은 결코 의미 없는 본능 따위는 아닌 듯싶었다. 별 좋은 창가로 나와 가만히 햇볕을 쬐고 있을 때면 흑사나 디오게네스의 환생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했다.

형님네에 갈 때면 녀석을 동반했다. 빈집에 혼자 둘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제 의미를 보러 가는 것이니까. 게다가 녀석에게는 진짜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 그건 바로 '사이'의 존재가 되는 것. 내 계산은 딱 맞아떨어졌다. 녀석은 제법 훌륭한 메신저가 돼 주었다. 형님과 나 사이 대화의 불꽃을 더 주었고 집안에 활기가 들게 했다. 개 두 마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시냇물로 개판이 따로 없었지만, 그렇게 '공유'함으로써 저 알곡은 감정을 벗어날 수 있었다.

'사랑이'도 죽고 '기쁨이'도 죽었다. 아이들도 자라서 제 길을 찾아갔고 집에는 적막이 남았다. 있다가 없는 건 견디기 어려운 법. 다시 또 개 한 마리를 데려왔다. 내리사랑이라고 했던가, 요즘은 더 애뻘했다. 움짤을 썰고 구멍을 뚫어 잠에 취한 모습이나 무엇이든 궁금해하는 호기심 가득한 행동이나 뭐가 그리도 좋은지 마구 흔들대대는 꼬리가 차라리 애뜻하다고 해야 할까. 참 알 수 없는 마음이었다.

개와 더불어 산 지 꽤 오래되었다. 그 사이, 공연히 분개하던 내 모습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품 안에 안고 가건 뽀뽀를 해대곤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애견

카페, 애견 미용실, 애견 운동장 심지어 애견 유치원이 성업 중이라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제 가족에게도 저렇게 할까? 의구심도 갖지 않는다. 그뿐이 아니다. 지나가는 개한테도 손 내밀어 아는 척을 하고, 끄적거리고 싶었던 고양이에게도 저절로 눈길이 간다. 길에서 만나면 행여 놀라지 않도록 발걸음을 멈추고, 요망스럽다 기괴하다 지레 통을 놓던 것도 거둬들이지 오래다. 이제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다. 개나 고양이를 보면 비명부터 지르는 사람,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거나 핀잔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공연히 못마땅하다. 대놓고는 못 해도 속으로는 쫓듯 혀를 차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일단 한번 키워 보시죠, 은근히 권유까지 해 보고 싶어진단다. 이런 마음이 될 줄은 어찌 알았겠나.

개가 없어도 나는 잘 살았을 것이다. 혹시 아프면 어쩌나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속박되는 일 없이 몇 날 며칠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애써 수고하지 않아도 집안은 더 정갈하고 깔끔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랬더라면 여전히 나는 저 개를 '모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의를 감추지 못했을 것이며, 늘어가는 애견 인구를 보며 세상이 정말 동물의 왕국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개탄해 마지않았을 것이다. 인간이라는 오만의 탈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한없이 거들먹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어떻든 개가 없어도 내 삶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테지만, 아니 훨씬 즐거우며 밝은 것이 분명하지만, 저 생판 다른 종들과 해할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우주 안의 한 생명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속에 적잖은 위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기고



서금석
문학박사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특별연구원

동북아시아의 주인공들은 정확히 사계절을 경험할 수 있었다. 태양력이다. 각각의 계절을 3개월씩 포함하여 12개월을 만들어냈다. 태음력이다. 다시 여기에 2 배를 곱하면 24절기가 된다. 태양력이다. 태양력과 태음력의 절묘한 합으로 시간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 고대시대 하루 16시간제가 운영되다가 결국 지금과 같은 12시간 체제(여기에 ×2=24시간)로 바뀐 것도 계절 변화에 따른 주야 장단의 길이를 조절하는데 12시간 체제가 더 유리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12시간 체제 혹은 24시간제와 자연의 리듬과 삶의 리듬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여타의 시간제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 24절기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개구리 겨울잠 깨는 시점으로 알려진 경칩(驚蟄)은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에 해당한다. 지금의 양력 3월 5일이 경칩이다. 간혹 3월 6일인 경우도 있다. 24절기는 태양력이다. 황도(黃道)와 적도(赤道)가 만나는 점

싱그러운 자연의 리듬, 경칩(驚蟄)

에서 시작하는 춘분점이 황경(黃經)이 0도이니, 경칩은 황도 345도 지점이므로 황경으로 따지자면 마지막 절기인 셈이다.

날랄 경(驚)자를 썼던 것으로 보아 곧 일어날 변화와 속도감을 짐작할 수 있다. 숨을 집(蟄)자는 겨울이나 숨어 지냈던 벌레들의 움직임임을 예고한다. 경칩이 그렇다. 생동감이 있다. 24절기로 자리 잡기 전의 경칩의 선조별 되는 시절 이름은 계칩(啓蟄)이었다. 열 계(啓)자도 새로운 동작을 준비한다. 글자 속에서 파쇄이 질은 추운 계절을 보냈던 땅 밑 벌레들의 움직임이 보인다.

24절기 출현은 고대 중국 통일 시기와 맞물려 있다. 천하 통일은 시간의 통일과 그 궤를 같이했다. 흔히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제가 각종 도량형을 통일하고 그 기틀을 다졌다면, 그 뒤를 이은 한나라는 드디어 중국 최초의 공식 달력인 태초력으로의 시간 통일을 이루어냈다. 그때가 한(漢) 제국의 7대 황제 무제(武帝)였다. 지금의 24절기 체제는 한나라에 들어와 새로운 시간 질서가 되었으며, 천하 통일을 지속시켰다.

무제(武帝)의 아버지는 한나라 제6대 황제인 경제(景帝)이다. 그의 이름이 유계(劉啓)였다. 황제의 이름 계(啓)자는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작명 글자로 사용할 수 없었다. 황제의 이름을 피했다고 해서 이를 피휘(避諱)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계칩(啓蟄)은 그

뜻이 비슷한 경칩(驚蟄)으로 바뀌었다. 계(啓)자가 경(驚)자로 바뀌었지만 더 역동적이다. 경칩으로의 변경 역사가 간혹 한나라 무제의 이름을 피했다고 짐작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 무제의 이름은 유철(劉徹)이기 때문이다.

경칩과 춘분 사이에 이르러 꽃샘추위가 찾아온다. 따스한 햇볕과 달리 바람은 세차다. 일교차가 커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자연은 분주하다. 사람도 분주했다.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때이다. 생명은 여기저기 색깔을 드러낸다. 완전한 싱그러운 자연의 리듬으로 바뀌는 시간이다. 개구리 알이나 도롱뇽 알이 연못 개울가에 흩어져 자생한다. 경칩은 그 시그널이다.

보릿고개를 넘기 힘들었던 우리 어른들은 바뀐 계절에 먹을거리를 찾아다녔다. 냉이를 쪄고, 재배해 두었던 봄동 채소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 마침 고로쇠 채취도 우수 경칩 시기와 겹친다. 풍부한 미네랄뿐만 아니라 뼈와 위장과 신장 등에 좋다는 고로쇠 수액이야 일반인들은 그림의 떡이겠지만 고로쇠 섭취는 그 역사가 오래되어 영양 보충에 기여했다. 5월 보리 수확까지는 잘 버티어야 했다. 봄 채소 나물이 생존을 위한 계절 음식이었다.

그래서 경칩은 자연이 보여준 배고픔에 대한 극복의 메시지였다. 시절은 희망의 연속이다. 그것이 시간을 만든 이유이다.

社說

일자리도 이익 공유도...갈 길 먼 전남 해상 풍력

전남도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풍력 발전 사업의 핵심 과제인 '전남형 상생 일자리'는 첫발조차 떼지 못한 상태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전남도는 지난 2021년 2월 8.2GW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전남형 상생 일자리 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통령도 참여한 자리에서는 노·사·민·경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일자리 12만 개 창출, 450개 기업 유치 등의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됐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 전남도는 정부 지원의 첫 단계인 '정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 신청서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기본 조건인 '3년 이내 100명 이상 고용 창출과 200억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세운 발전사나 풍력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국내 해상 풍력 발전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딘 규제 완화, 고금리 기조 속 투

자 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나마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도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고, 여건 변화 등을 지켜본 뒤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도 2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보니 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 쓰이는 각종 지원금도 아직 먼 얘기다.

반면에 전남도보다 늦게 상생 협약을 맺고 사업에 뛰어든 대구와 구미는 이미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됐고, 지난해 준비를 시작한 익산도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2년이 넘도록 첫 단추도 꿰지 못한 상태다.

전남도는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 참여 기업을 조속히 확정하고 개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풍력 발전 추진 속도를 높일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립공원 10년, 무등산 생태계가 되살아난다

호남의 진산(鎭山),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지고 자연환경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무등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 10년 만에 2296종에서 4108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동물 1699종, 식물 1729종, 균류 포함 기타 680종 등이다. 이 가운데 동물은 포유류 31종, 조류 133종, 양서류 13종, 파충류 16종, 어류 29종, 곤충 1477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멸종 위기종은 열 종에서 29종으로 세 배가량 증가했다. 국립공원 지정 전에는 수달·삼·산작약 등 동물 여덟 종과 식물 두 종이 자생하는 데 그쳤지만, 지금은 담비·남생이·수리부엉이·팔색조·대롱란 등 동물 24종과 식물 다섯 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연기념물인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지난 2018년 4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공식 인증된 뒤 엇그제 제

연중에 성공해 오는 2026년까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사유지를 사들여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그동안 2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 830만㎡를 매입, 전체 사유지 비율을 2013년 75%에서 지난해 64%로 줄였다.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는 훼손된 자연환경이 회복되고 종 다양성이 풍부해지며 무등산이 생물자원의 보고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국립공원사무소와 무등산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이다. 하지만 군부대와 방송 통신탑 이전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국립공원 승격 10주년을 기념해 올해 첫 정상 개방이 이뤄진 그해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무등산을 찾아 달린 생태 환경과 봄기운을 만끽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담양군, 화순군 등 무등산이 속해 있는 지자체들도 되살아나는 자연환경을 소중히 지켜가기 위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나들이를 나가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휴일이면 문화 명소나 맛집을 찾아 교외로 빠져나가는 차들을 많이 보게 된다. 예전과 비교해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도시락을 싸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불과 십수년 전만해도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앉아 맛있는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급식이 일반화되면서 초중고 학교에서도 도시락을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예전에는 가방과 실내화 주머니, 도시락을 자담하는 건 기본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도시락 '전원일기'를 비롯 두 개는 기본이었고 어떤 학생들은 세 개까지 싸 온 경우도 있었다. 물레 교문을 빠져나가 분식집에서 라면이나 떡볶이를 먹고 오는 학생들도 부지기수였다.

고물가 상황이지만 편의점 도시락이 한 끼 식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얼마 전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하나 산 적이 있다. 가성비 좋고 푸짐한 '해자스럽다'라는 신조어까지 낳은 '김해자 도시락'이 눈에 띄었다. 2010년 출시돼 2017년까지 40여 종 상품이 판매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는

표면상 이유보다 '해자로운 집밥'이라는 문구에 눈길이 갔다.

'해자스럽다'는 신조어의 뜻만큼이나 도시락 가격은 저렴했다. 당초 4500원이지 14일까지는 3900원에 판매되는데 여기에는 '고물가 시대 걸스아동'이 급식 위해서 라는 김해자의 뜻이 반영됐다든 후문이다. 어떤 커뮤니티에는 "별인 로열티를 깎아 책정된 할인 기간"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가격 비밀이 알려지기도 했다.

김해자는 가장 한국적인 배우이자 어머니를 표상하는 배우이다. 드라마 '전원일기'를 비롯 해 수많은 작품에서 세대를 초월한 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했고, 빈곤 아동 구호 활동을 펼치는 등 봉사 활동에도 앞장섰다. 고전적인 도시락은 어머니의 마음과 손맛을 상징한다. 김해자와 어머니, 집밥, 도시락, 손맛, 추억, 정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유다. 확장시절 점심시간은 저마다 다른 반찬을 싸 온 덕분에 소박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머니의 도시락이 그리운 시절이다.

/ 박성천 여론매체부 부국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